

「마음 열고 | 찬양과 나눔」

- 내가 매일 기쁘게(찬송 191장, 구 427장)
-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매 순간 감사를 드리지만,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한 채 자기 욕망만 좇습니다.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듯하면서도 끝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죽음의 그늘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.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 깊이 간직할 때, 우리는 다시 의의 길을 걷기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맬 수 있습니다.

「마음 다해 | 말씀과 나눔」**1.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지키시고 악인의 길을 심판하십니다(26:1-12).**

- 1) 주께서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까?(3절)
- 2)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?(10절)

나눔 1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만,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 갑니다. 내 삶의 영역(가정, 일터, 관계)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과 고집이 앞섰던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.

2. 예언자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(26:13-27:1).

- 1) 하나님의 백성이 ‘다른 주’(세상 권세)의 다스림 아래 있더라도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?(13절)
- 2) 세상의 죽은 자들과 달리, ‘주의 죽은 자들’에게 약속된 소망은 무엇입니까?(19절)

3) '그날'에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벌하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?(27:1)

나눔 2 입술로 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돈이나 건강, 혹은 타인의 인정 같은 '세상의 주인들'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 줄 때가 많습니다. 최근 내 시간이나 감정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,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던 '나만의 주인'은 무엇이었는지 나눠 봅시다.

나눔 3 부활 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원동력입니다.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한 주간 내가 소망 가운데 새롭게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?

「 마음 모아 | 함께 기도 」

삶 _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.

공동체 _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소서.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

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나를 안보함 이요
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없을 때 예수 십자가 의공로 힘입어
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열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
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

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함께함 이라
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함께함 이라
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함께함 이라
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함께함 이라

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

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함께함 이라